

# 서방 국가들, '하마스 연계 의혹' 유엔 구호단체 지원 중단

### 미국·영국 등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지원 중단 줄이어 이스라엘, 중단 동참 촉구... 유엔 총장 "지원은 계속 되어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일부 직원의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유엔 구호단체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UNRWA 직원 1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전날 유엔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동안 UNRWA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미국은 UNRWA에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3억 4000만달러(약 4500억원)를 지원

했다.

호주,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4개국은 총 6600만달러(약 880억원)를 지원했다.

독일은 2022년 기준 1억 9000만 유로(약 2700억 원) 이상을 제공했고 스위스는 매년 약 2000만 스위스 프랑(약 309억 원)을 지원해왔다.

이탈리아는 2022년 기준 총 1400만 유로(약 203억 원)를, 네덜란드는 지난해 1900만 유로(약 276억 원)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이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UNRWA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원 중단에 동참하는 국가는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이날

"UNRWA를 진정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기구에 대한 재정 중단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UNRWA는 서방 주요 국가들의 지원 중단 결정에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필립 라자리니 UNRWA 집행위원장은 "이는 가자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에게 이 같은 추가적 집단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원 중단을 결정할 회원국들을 향해 제고를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제

기된 직원들의 혐오스러운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UNRWA에서 일하는 인력 수만 명, 인도주의 업무로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다수를 징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UNRWA는 1차 중동전쟁이 있었던 1949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서 1차 의료와 인도적 구호 활동,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UNRWA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 전역에 154개 피란민 보호시설을 운영해왔으며,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00명 이상의 직원을 잃었다.

/연합뉴스



20개월 만에 재개된 멕시코 투우 경기  
멕시코 전통 모자를 쓴 남성이 28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투우장에서 투우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멕시코시티에서는 지난달 멕시코 대법원이 투우 경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약 20개월 만에 경기가 재개됐다.

/연합뉴스

## 프랑스 농민들, 농업정책 반발 파리 봉쇄 예고

### 경유 면세 폐지 등 항의 정부, 보안군 투입 방어

정부 농업정책에 반발해 트랙터 시위를 벌여 온 농민들이 수도 파리를 봉쇄하겠다고 예고했다.

28일(현지시간) AP·doat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전국농민연맹(FNSEA)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파리로 향하는 모든 간선도로를 무기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남서부 로트제가론 지역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파리 근교 링지스에 있는 도매시장을 봉쇄하기로 했다.

제랄드 다르마냥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보안군을 투입해 링지스 도매시장과 파리 공항 봉쇄를 저지하고 농민들의 파리 진입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농민들은 비(非)도로용 경유 면세의

단계적 폐지와 유럽연합(EU)의 지나친 환경 규제 정책, 수입 감소 등에 항의하며 이날 18일부터 고속도로와 국도를 트랙터 등으로 막는 시위에 나섰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지난 26일 소 사육농장을 찾아가 경유 과세 조치 취소 등 농가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성난 농민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르노 루소 FNSEA 대표는 현지 매체 라트리분위디망슈 인터뷰에서 아탈 총리가 122가지 요구사항 중 일부만 해결했다고 지적했다.

아탈 총리는 이를 만에 또 농가를 방면해 농심 달래기에 애썼다.

아탈 총리는 이날 중서부 앙드레루아르 지역의 한 농가를 방문해 "한쪽에서는 품질을, 다른 쪽에서는 낮은 가격을 원한다"며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식량을 수입하는 다른 나라와 불공정 경쟁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친이란 민병대 공격에 미군 첫 사망...바이든 보복 예고

### 요르단 정부 "사망 미군 시리아에 있었다" 밝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 가운데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가 전날 밤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공격의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고 있지만, 이란이 후원하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민병대가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이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해 보복을 다짐했다.

미군 방어 시스템이 민병대의 드론 공격 요격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우방인 요르단에는 통상 미군 3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당초 미 중부사령부는 부상자가 25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미 당국자는 최소 34명에 대해 외상성 뇌 손상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에 전했다.

미국은 이란지원 무장세력의 중동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자 지난주 헤즈볼라 및 기타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이 사용했던 이라크 내 시설 세 곳을 공습한 것을 비롯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에 여러 차례 공격하는 등 군사적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동에서 확산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사망한 미군 병사들이 요르단이 아닌 시리아에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예술이 중요하냐"...모나리자에 수프 끼얹어

### 농업정책 전환 요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회화 작품으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프랑스 농업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수프를 끼얹었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여성 두 명이 '견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 모나리자에 빨간색과 노란색 수프를 던졌다.

이들은 모나리자 앞에서 "예술과 견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 대한 권리 중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당신들 농업정책은 병들었다. 우리

농민들은 일하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차레로 발언했다.

이들은 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른바 '미술품 테러'까지 감행한 것이다.

모나리자는 1956년 볼리비아 남성이 던진 돌에 훼손당한 이후 유리로 덮여 보호되고 있어 직접적인 해를 입지는 않았다.

모나리자는 종종 '테러'의 표적이 되는 유명세를 치러왔다. 재작년에는 한 남성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외치며 케이크를 던졌다. 2009년에는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화가 난 러시아 여성이 찢잔을 던졌으나 작품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계선자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열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